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전학 갈 수 있나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희망했던 1, 2지망 학교가 아닌, 집에서 멀고 내신 경쟁도 치열한 곳에 배정받았어요. 선택 과목도 아이 적성과는 안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사는 곳에서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전학이 가능할까요?

_ 여소은 (47·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전학이 허용됩니다.

전학은 이사 등의 사유로 통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정받은 학교가 소재한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 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전학하거나, 다른 학교군으로 전학 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해 전학을 신청하면 최초 배정 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가족이 다른 학교군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내 고교에서 3개월 이상 재학해야 가능하다.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처음 배정 받았던 학교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단,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학교장 허가하에 전학이 허용됩니다. 또한 일반고에서 일반고로의 동일 계열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교권 침해학생, 공익제보 자녀 피해 학생의 동일 계열 학교 전학 시에는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에는 계열과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

MORE TIP

고등학교 전학은 기본적으로 학교군, 학교, 학년, 남녀별로 결원 수 범위 내에서 통학 여건(근거리,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수시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학 신청 시 학교군 내 3지망까지 희망 학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원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다면 해당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결원이 없다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각 학교의 결원 수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경험의 다양성은 무엇을 평가하는 건가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서를 살펴보다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평가 항목을 봤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들어봤는데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심지어 평가 비율이 전공 적합성과 동일한 곳도 있더라고요. '경험의 다양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_ 김소현(45·서울 은평구 진관동)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를 살펴봅니다.

경험의 다양성은 교과 습득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학교 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사회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춘 학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설정된 평가 항목입니다.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체험 활동과 독서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지, 그 경험을 통해 시각이 넓어졌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살펴봅니다. 예체능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과 이를 통해 성취한 것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성균관대 권영신 입학사정관실장은 "활동의 다양성은 2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째,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도 열심히 한다면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 계열 지원 학생이 인문학 동아리나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한다면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진로 외 분야에서의 다양한 수상 실적도 마찬가지다. 둘째, 한 분야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한 것도 활동 다양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학과 진학 희망 학생이 역사 동아리, 역사 수상 실적을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언급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자신만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MORE TIP

서강대 강경진 책임입학사정관은 "진로에 매몰돼 다른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의미다. 진로와 전혀 관계가 없다 생각되는 교과목과 학교 활동 역시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하거나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하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활동의 다양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교 활동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